서식 2-2

입후보 소견서

대한지질학회 제42대 회장후보로 선정된 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이 입후보 소견서를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 및 전자투표 시스템에 공지함을 동의합니다.

2023년 8월 7일

후보자 성명 : 최성희 (서명)

존경하는 대한지질학회 회원 여러분,

1947년에 창립한 대한지질학회는 기초과학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보기 드물게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질과학분야의 대표 학술 단체입니다. 이에 제42대 대한지질학회 회장 후보로 소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에 재직 중인 최성희 교수입니다. 저는 암석학 전공자로 극지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후 2009년에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질학회에서 제5대와 제8대 전문위원, 제38대 임원(이사) 및 제40대 임원(부회장)으로 봉사한 바 있습니다. 2018-2019년에 지질학회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리고 2013년 이래로 Geosciences Journal의 편집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지질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한지질학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질과학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광석, 탄전, 석유 등의 자원개발을 필두로 우리는 지구의 구조와 구성물질 및 이의 진화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기후변화 및 생명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구 역사를 탐구해 왔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지구의 특성과 관련된 지진, 단층, 화산 폭발과 같은 환경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잠재력도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지진, 산사태, 쓰나미를 포함한 자연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두산 화산 활동의 재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질 재해의 영향을 이해하고 예방하며 복원 전략을 짜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도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며, 환경 오염 물질의 분포와 거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하수를 포함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이나 희토류 등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함께 행성 지질학 및 우주 생물학 분야에 대한 통찰력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질유산을 보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IGC)를 앞두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부산광역시와 함께 주관 기관인 대한지질학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제가 대한지질학회의 회장직을 맡게 된다면 한국 지질학회의 숭고한 전통을 이어가며 현재의 도전을 뛰어넘고 앞으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학회의 강점은 고유한 관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지질학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경청되고 존중되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성 개발과 지식 공유를 위해 추계학술대회가 짜임새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문의 계승과 학회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젊은 지질학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질학의 발전과 함께 학회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질학은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그 기여는 자연재해 예측과 자원 관리에서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에 홍보 프로그램, 공개 강의, 특별 세션 등을 조직하여 지질학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질학의 많은 도전과 질문에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통찰력을 얻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이끌어내도록 국내·외 다른 학회 및 유관기관과 더욱 강력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해, 환경문제, 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질 데이터,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세계가 발전함에 따라 지질학계의 도전과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지질학회의 명성을 이어나가 더욱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대한지질학회 제42대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